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실 때까지

[짧은 말씀 묵상집 (10)]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 보시기에 ...?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려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원한다는 것?
(잠 28:9)

하나님 보시기에 다 큰 계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10 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는
제 1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출 20:3).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제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새벽기도회 때 마태복음 5 장 19 절인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큰 계명이 있고 "지극히 작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큰 계명인 것 같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10 계명 중에
제 1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면
제 10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는 계명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 3:5 -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합니다(시 50:16-17).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노인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시 71:20)

측향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으로 인하여(15 절)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의 성실을(22 절) 더욱더욱 찬송하며(14 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8 절) 속량받은(23 절) 백발의 노인은(18 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노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1)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잠 23:15-16)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17 절).

[그 이유는 그들은 죄인에게는 장래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8 절).]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17 절).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장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18 절).

*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통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 요셉).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8:13).

그러므로 악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은혜로

여깁니다(빌 1:29).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 (2)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잠 23:15-16)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19 절).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습니다(19 절).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렘 23:29)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기경합니다(호 10:12).

자신들의 마음을 부서트리려고 또 부서트립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엡 6:17)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게 합니다(행 2:37).

그들은 양심에 찔림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듭니다(시 119:56).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끌게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 (3)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잠 23:15-16)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않습니다(20 절).
그 이유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21 절).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락을 즐기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결코 친밀하게 또는 가깝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러한 자들은 지혜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20:1).
그 이유는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23:29).
그 이유는 그들은 연락하는 자들은 가난하여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21 절).

우리가 사귀어야 할 자들은 첫째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해 줄 수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사귀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가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우리의 신앙의 안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면
우리는 가까이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벧전 3:3-5).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눅 16:14-15).

하나님 앞에서와 배우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축복하며 나누는데

축복하고 싶은

배우자의 눈에는 천히 보여

심중으로 업신 여김을 당하는구나

(삼하 6:12-22).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

자꾸만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시므로
그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렘 2:35-37).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시편 기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시 90:12).
우리 또한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내포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란 ... 입니다.

1.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소서",
2. "인생을 가치있게 지내야 할 것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자기의 형편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저는 제 신앙의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왕상 19:1-4).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자라나고(growing)
서로 사랑함이 증가(increasing)될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살후 1:3).

하나님께 감사 ...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창 32:10).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많은 축복을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립니다(시 117:2).

하나님께 나의 복수를 말긴다?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는 원수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고
주위 사람들도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복수하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 ...
(삼상 24:12, 26:10, 롬 12:19)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기 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 쌓기에 노심초사합니다
(눅 12:16-21).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

창녀의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악을 행하여 자기 욕심을 이룹니다
(렘 3:3-5).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역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대하 20:15).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범하면(수 7:1)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며(6:18),

패배의식 속에서 두려워하며(7:5),

현재의 상황을 후회하며 오히려 그리운 과거로 만족하여 돌아가고 싶어합니다(7 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요일 5:1).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1 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킵니다(3 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4 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5 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사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다.

(2018 가을 말씀 집회 둘째날 강사 김경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재난을 내리시는 이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신실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난을 신실하게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목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하십니다
(참고: 렘 44:27-29).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받치는 헌신의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치는 봉헌물을 받으실까요? (말라기 1 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실 때까지 ...

에서는 자기를 두 번이나 속여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한 자신의 축복까지 빼앗은 자신의 동생 야곱(창 27:36)을 미워하여

심중에 "아버지(이삭)의 임종이 가까왔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 버리겠다"고 했습니다(41 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을 들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그에게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말했습니다(42-44 절).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려 야곱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릴까라 생각했습니다(44-45 절).

그러나 에서의 분노가 풀리던지 야곱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셔서 그를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28:15).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실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15 절, 현대인의 성경).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호 6:6).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4:1).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습니다(6 절).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6 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6 절).
지금 교인들과 교회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범죄하고 있습니다(7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계십니다
(7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들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엡 5:11).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1 절).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기에(요일 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호 6: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헌신하라

삶을 받치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이삭보다 사랑하느냐?’이다.

요한복음 21 장 15 절 -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받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첫번째가 되길 원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의 첫번째인가?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눈 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흠친 물건”을 드렸다
(말 1:7-8, 13).

이러한 봉헌물(13 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8, 10, 13 절).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봉헌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지 않으셨다(9 절).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리는 자는

아브라함이 제일 귀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받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가 제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받친다.

받치되 “여호와 이레”(여호와와 함께 준비되리라)를 믿고 받친다(창 22: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승리장로교회 39 주년 말씀집회와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별세 신앙생활과 주님의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종말 신앙생활과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천국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뢰의 침묵으로

영원한 약속의 하늘 나라를 향하여 감사의 찬양의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나를 내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 만나이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만나시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만나를 먹이시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맞서 나가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하 20:17).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광야에서 40년간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민 14:11-34).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창 43:23).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보다(삼하 11 장)
이방 나라에서 노예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창세기 39 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들?

교회 사역과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할 때
다윗의 관한 사무엘상 22 장 1-2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치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곳으로 찾아갔다.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빛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약 400 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고 있었을 때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 외에 아둘람 굴로 모여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빛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몇몇 지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비슷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께서서는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참고: 창 21:1-6).

하나님께서서는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 믿는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창 39:4)

또한

동일한 그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19-20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불신자를 만나게 하시사(40:1)

그 불신자에게 도움을 받게하시기도 하십니다(41:9-13).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서는

또 다른 불신자를 만나게 하시사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37-45 절).

그러므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시사(롬 8:28)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12: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크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사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능력있게 역사케 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케 하시므로

더욱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를 많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살전 1:5-6, 2:13).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목사를 ...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목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십니다(말 2:9).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는 목사(2 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5 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없고 오히려 불의함이 있는 목사(6 절),

지식을 지키지 않는 목사(7 절),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에 거스르게 하는 목사(8 절),

많은 사람들을 치우지게 하여 최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목사(6, 9 절).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
우상들을 따르게 만드는 불신자를 사랑하여
통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상 11:1-6).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아시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시 139:1-4).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라
모든 악행을 범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신 31:16-20).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은 후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27-29 절).

하나님은 우리를 ...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사 43:1).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 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1 절; 44:22, 23).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44:22).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23 절).

하나님은 우리를 반기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반기시며
많은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시 69:13).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 44:21).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43:25).
"...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46:11, 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시 46:1, 7, 11).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1 절).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1 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5 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5, 7, 11 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3 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5 절).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것입니다(10 절).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4).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마 19:16).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에게 “...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 절).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계명들)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여쭙습니다(20 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1 절).

그 때 재물이 많았던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22 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23-24 절).

그 말은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25 절).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26 절).

오늘 본문 로마서 8 장 3 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2 절).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세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7:12)

또한 신령하다(14 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8:2).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3 절).

모세의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2 절).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 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니다(3 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3 절).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요 1:14).

육신이 되시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히 4:15).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눅 1:35)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연약한 육신의 모양이 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 죄의 형벌, 지옥에 갈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롬 5:21).

또한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도와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히 4:15).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롬 8: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4 절).

비록 율법의 의, 즉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지만(3:20)

하나님께서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시되(21 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4:24).

그 결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8: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2 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1 절) “생명의 성령의 법”(2 절)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4 절)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1 절).

[원로 목사님의 수요기도회(2015. 7. 8.) 설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매우 사랑하고 매우 귀히 여기는 사람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칩니다
(창 22:1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합니다
(왕상 18:3-4, 7-15).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렘 32:4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신 후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사 안전히 살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사
우리과 우리 후손의 복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케하시므로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천국에 심으실 것입니다(37-41 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텐데 ...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 28:14).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지 않으므로
악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8:13).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기에 악을 멀리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버립니다(28:13).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창 30:2, 50:19).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되
될 수 있는데로 멀리 도망가려고 한 결과
우리는 동서남북 갇힌바 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멀리 떠나셨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한 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멀리계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나서 묵상집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민 14:11).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YMCA 에 가서 운동한 후 싸우나를 할 때

종종 보게 되는 것은 조그만한 수영장 안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들어가 있고

2, 3 살 되보이는 아이들이 수영장 밖에서

자기 엄마나 아빠를 쳐다보면서 수영장 안으로 점프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로 동양인 엄마들은 점프하는 아이를 수영장 안에 풍덩 빠지기 전에

아이를 받아야하는데 미국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아이가 물안에 풍덩빠지게 놓아두었다가

아이를 물 안에서 끄집어 내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는 잠언 3 장 5-6 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목격한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처럼 자기 아빠나 엄마를 믿고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 수영장 안으로 점프하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기 위해선 ...

- (1)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심을 믿어야 하며,
- (2)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하며,
- (3)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명의 정탐군들처럼(민 32:11)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큰 문제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문제만 보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낙심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12 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큰 문제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큰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실 더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히 11:6)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잠 3:5-6)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진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다(롬 4:20-21).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에는 ...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에는
유혹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 살이도 있습니다
(창세기 39 장).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나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참고: 시편 51 편).

(Mark J. Boda, "THE GOSPEL ACCORDING TO DAVID: AFTER GOD'S OWN HEART"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는 ...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딥니다
(살후 1:4-5).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롬 12:2).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은 익숙치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 장 14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신여기는 것입니다(10 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므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벧전 3:16-17).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보다 자기 명철을 의지했다면(잠언 3:5-6)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매우 힘든 시험을 하셨을 때(창 22:1-2) 그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100 세 때 얻은(21:5) 독자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22:2)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만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 보라 ... 네 자손이 이와(하늘의 셀 수 없는 못별처럼)란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15:5).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22:12)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12 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9-10 절, 히 11:17).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욘 41:19-21),

검이요 (사 49:2), 방망이 (렘 23:29) 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얼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무디어진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하며, 강박한 우리 마음이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

우리는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회로 삼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심비에 깊이 적어 내려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시 119:56).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해야 ...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참고: 출 9:18-2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마 15:8),
사람이 만는 법을 마치 예수님의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므로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우리들(9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우리들(3 절),
부모님에게 들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들(5-6 절, 현대인의 성경),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들(19 절),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offended)이 되어 합니다(12 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엡 6:17, 히 4:12)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행 2:37) 마음을 찢고(욘 2:13) 회개해야 하는데 ...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약하여지고 겸손해져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대하 34:27).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창 12:1-4, 히 11:8).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이 또는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약 1:7).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수 1:9).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의 법"(롬 7:22, 25) [vs. "죄의 법"(23, 25 절)]

"믿음의 법"(3:27) [vs.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법"(6:14, 15)],

"생명의 성령의 법"(8:2) [vs. "죄와 사망의 법"(2 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법을 묵상할 때

저는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법", 성자 예수님의 "믿음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

그리고 저는 이 성삼위일체의 법을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1:17)는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완성시킨 구원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엡 1:3-14 참조).

그런 후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법"은 구원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는 법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의 진리를 순종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로마서 15 장 16-21 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딤후 1:12).
그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롬 15:15).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딤후 1:13)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인데(고전 15:9)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롬 1:5; 11:13)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고전 15:10).

사도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롬 15:15-16).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이(행 9:4, 5)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롬 15:15-16).

바울은 성자 예수님의 일꾼(a minister)으로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ministering)을 감당하였는데
여기서 그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16 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란(1:1)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2 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3-4 절).

성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목적은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롬 15:16).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되(1:5)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 순종하는(5: 15:18)절), 즉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15:16)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12:1)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사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15:18).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되(17 절)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18 절).

그 성자 예수님의 역사의 결과로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된 것은(18 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19 절).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17 절)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18-19 절)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1:5; 15:18).

결국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하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므로
그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하되(벧전 2:9)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되어(살전 1:5)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여(롬 1:5)
그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살전 2:13)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1:6).

[2019년 2월 10일, 원로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은 후 요약한 것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

궁핍한데서 더 궁핍한 상황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찬송가 342 장).

문제 가운데서 더 큰 문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케 만드십니다.
기도케 만드시되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왕상 17:22).

역경 가운데서 더 큰 역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신 8: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왕상 17:24).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24 절).

하나님의 사랑은 ...

하나님의 사랑은 ...
보내시는 사랑(요 3:34)
주시는 사랑(16 절)
함께 하시는 사랑 ... 입니다
(마 1:23).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의 뿌리입니다(말라기 1:2).

예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마음은
다양한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Iain M. Duguid & Matthew P. Harmon 의 "Zephaniah, Haggai, Malachi"
REFORMED EXPOSITORY COMMENTARY"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므로
주님 곁에 안전하게 삽니다
(신 33:3, 12).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주님 안에서 즐기며 누리자(전 3:13, 5:19).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서는

(시 34:8, 롬 8:28)

나를 해하려고 했던 형제/자매들을

결코 선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창 50:20).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시험과 헤어짐과 죽음과 같은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100 세 얻은 이삭을 받치라고 명하셨습니다(창 22).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20 년 동안이나 헤어져서 떨어져 살게 하셨습니다(31:38).

야곱의 하나님은

그가 자녀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17 살 때 죽은 줄만 알게하셨지만(17:2)

22 년 후에 요셉이 39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45:26).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모든 후손들을 가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이 땅에 보존해 주셨습니다(5, 7 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시 33:4).

하나님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셔서

그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출 16:4),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17:2, 7).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

(왕하 5:26, 현대인의 성경)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환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욕심(탐욕) 속에서
교회 새신자 분들에게 돈을 받을 때인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전에 아들을 살려 준 그 수범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7년의 기간 동안 그녀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다가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에게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 달라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8:1-5).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행 16:6-7).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몰랐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선교지를 찾아 열심히 나섰지만 아시아나 비두니아 모두 성령님께서 막으셨던(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님께서 막으셨을 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막으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지케 하실 때 우리는 브레이크(Break)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성령님께서 “멈추라”하면 우리는 “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너무 깊게 밟아 속도를 너무 빨리내느라 브레이크 페달을 갑자기 잘 밟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라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막을 실 때에 우리의 영적 브레이크 페달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앞을 보고 달리기에만 바빠서 멈춰야 할 때를 분별 못하고 무심코 달려서는 아니됩니다.

성령님이 달리라 하면 달리지만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 민감함(spiritual sensitivity)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흐지부지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흑백이 분명하게(plainly) 하시며,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막으심(허락지 않으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인드(mind)를 날카롭게(sharpened)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 장 2 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2 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데 치명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데 치명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과 공의[나의 의(my righteousness)]입니다
(신 8:14, 9:4-6).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과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행 11:19-23).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것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켰을 때
주로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믿는대로 살지 않는다.

지금 이 시기에 이 과거의 글이 폐복에 뜬 것,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지금 나는 이 새벽에 이 글을 접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1.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분수에 넘치는 욕심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2. 그 순간 내 양심은 내 욕심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나는 내 욕심 따라 행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리 행한다.
3. 결국 나는 내가 믿고 말(설교)한대로 살지 못한 것이다. 나의 위선이 들어난 것이다.
4. 그런데 나는 또 다시 성도님들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내 설교를 하고 있다.
5.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 공로' 의식으로 가득차 있다.
6.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7.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아닌 사람인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1. 막으시고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행 16:6-10).

2.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출 13:17-18).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14-15 장) 우리를 낮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신 8:2-3).

3. 앞서 인도하시다가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마 2:9).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사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눅 10:39-40).

4. 마귀에게 유혹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tempt)하지 않으십니다(약 1:13).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test)하십니다(예: 창 22 장). 시험하시되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God's permissive will)(마 4:1).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하신다는 말이 아니라[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약 1:14)]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마치 사탄이 욱의 자녀들과 물질과 욱을 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욱 1:12, 2:6)].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마 4:4, 7, 10, 참고: 신 8:3)].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요 6:29).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40 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막 8:33-35).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요 6:29).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보입니다(빌 1:25).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우리들끼리 확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 (마 5:24)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들, 군사들은 ...

하나님이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딤후 2: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전 15:10)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은 주님께 충성되어야 합니다(딤후 2:2).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고전 4:2).

하나님의 군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딤후 2:3).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1:8).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빌 1:29).

하나님의 군사들은 모집한 대장되신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딤후 2:4).

우리는 우리 생활에 얽매어서는 아니됩니다(4 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시 43:4).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롬 8:30)
[[예정) (엡 1:4-5; 롬 8:29)].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부르신 사람들을
먼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즉 중생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중생의 필연적 결과로 뒤 따르는 것은 회심이요
이 회심에는 회개적 요소와 신앙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엡 2:8-9)
(인터넷 참고).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가르치심이 ...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가르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시 25:12, 14).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9 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일에 수고하므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전 5:18).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시 5:6).

하나님이 임하심은 ...

하나님이 임하심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 20:20).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왕상 8:56).

"하늘에 쌓아 둔 소망"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은
"복음의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골 1:5, 23, 27).

한 뼉 길이만한 나의 날

"한 뼉 길이만"한 "나의 날",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한 인생,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시 39:5, 현대인의 성경).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6 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11 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7 절).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에
우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므로
우리 각 사람이 천명에게 주님의 선한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참고: 수 23:10).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안에 있는
약 120,000 명의 니느웨 백성들(앗수르 사람들)을 아끼셨다기 보다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더 아끼시사
요나 한 사람을 빚으셔서
결국에서 하나님의 미션(명령)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저는 사사가 6-8 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 안에서 건져내심에 있어서
부르시고 세우시사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신
한 주님의 종 사사 기드온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두려움에서 구원(승리)의 확신을 주시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요나나 기드온이
그들의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삶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그(녀)와 함께 하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조금 전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의 요한복음 1 장 14 절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들은 후).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에 ...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출 18:9, 18-22; 민 11:14, 16-17; 롬 12:15).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행한 나쁜 일들이나
우리에게 행해진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롬 8:28).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범한 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28 절).

항상 족하게 여기므로

우리가 주님 한분 만으로 만족하므로
다른 신(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젊어서 취한 아내(남편)를 항상 족하게 여기므로(잠 5:18-19)
다른 여자(남자)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6:25).

해산의 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그/녀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녀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갈 4:19).

해산의 수고에는 고통이 따르듯이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 16:24; 막 8:34; 눅 9:23).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여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남자 ...
(삿 19:2-3)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하나님 앞에서 들춰지는 내 많은 허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흘려 죽으심으로
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
(잠 17:9).

허영심에 가득찬 사람

교회 안에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허영심에 가득찬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불평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빌 2:3).

헛되이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서(시 78:22)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배반하며 시험하되
탐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17-18 절),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30 절)
여전히 범죄할 때에(32 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또한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십니다(33 절).

헛된 것을 멀리해야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잠 30:8).

우리는 헛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8 절).

우리는

헛된 세상과(전 1:1-11)

헛된 지혜와(12-18 절)

헛된 쾌락(2:1-11)을 멀리해야 합니다.

헤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은 있으나 그 양심대로 실행하지는 못하면서(막 6:20)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은 근심 속에서라도 지키는 자 (26 절) ...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말은 실행하는 자)

헤어짐 후에 새로운 만남을 ...

사랑하는 어머니(혹은 아버지)와 사별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창 24:67).

헤어짐 후에 새로운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상속자이기에)(롬 8:17)

"현재의 고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18 절).

고난을 받되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인내하며 견디며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18 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18 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현재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고후 4:17)과

족히 비교가 안됩니다(롬 8:18).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23 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퍼지는 날(고전 15:52),

우리의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52 절).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빌 3:21).

이 외에도 장차 나타날 내세의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고전 13:12; 계시록 22:4)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계시록 22:5).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5 절).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로마서 8 장 18 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임]

형제/자매 사이의 이간질

나와 우리가 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있고
그러므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형제 사이의 이간질입니다
(잠 6:19).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달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말 1:10).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너희가 내 성전에 와서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군가 성전 문을 달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

'혼자'가 "함께" 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혼자' 나느웨로 가기보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여
불신자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욘 1:2-3).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화로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야 하는데,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파야 하는데,
나 자신이 실족하고 죄를 범해도
애타지 않고 마음도 아프지 않으니
이 어찌하랴!
(고후 11:29)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은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은 ...

1.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고후 5:20).

그/녀는 그/녀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2:14).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녀의 마음을 주장합니다(골 3:15).

그/녀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기의 구할 것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빌 4:6-7).

2.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냅니다(롬 12:18, 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고후 5:18).

그/녀는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행 10:36).

3. 공동체의 화목을 추구합니다.

그/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녀는 화평의 일에 힘씁니다(롬 14:19).

그/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빌 2:2; 행 2:44-47; 4:32-35).

[Iain M. Duguid, "Hero of Heroes"란 책을 읽으면서]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시 22:11).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사 50:10).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많이 배워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 (4 절 상반절) (박윤선)].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배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4 절 하반절) (박윤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서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8 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고(7, 9 절)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새찬송가 336 장, 1 절).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

1.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강하여 용맹을 떨쳐야 합니다(단 11:32).
2.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33 절).
3.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35 절).

회개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목사

니느웨 백성들은

주님의 종인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였는데(요나 3 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4 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회개를 하고 있다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은 ...

지난 날처럼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황폐하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우리의 삶에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되신 예수님의 소리와 신부된 교회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렘 33:10-11).

회복이란 ...

회복이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겔 39:25, 27, 28).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

고난(환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살전 2:14; 3:2-3).

흥미로운 관찰

비슷한 말씀:

(1)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삿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2 절)

전쟁 승리!

(2)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20: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18 절)

전쟁 패배

다른점:

1. (1) 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인 반면에 (2)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2. (1) 전쟁에서는 승리한 반면에 (2) 전쟁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3. (1)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고 약속하셨지만 (2)에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전리품 분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는 하나님의 말씀(민 31:2)에 모세는 순종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 씩, 이스라엘 백만 명중 12,000 명을 전쟁에 보냈습니다(4, 5 절). 그리고 그 12,000 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7 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8 절).

흥미로운 점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디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11 절)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12,000 명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 880,00 명[백만 명(5 절)에서 12,000 명을 빼면 880,000 명임]에게 주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27 절).

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그리 반분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군인 12,000 명에게 전리품 50%, 회중 880,000 명에게 나머지 50%를 주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때의 1/500 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비해(28 절)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나머지 회중에게는 1/50 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30 절).

이 정도로 하나님은 군인들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공화당(민주당 말고)에서 미국 군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순종이 제사 보다 나은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는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삼상 15:2, 9, 18, 22-23; 삼하 1:8-10).
흥미롭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결과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신속한 기도 응답과
주님의 사랑의 말씀과
주님의 견지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시 143:4-11).

희생의 기쁨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는(빌 1:8)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25 절)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2:17).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사
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
그들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출 3:1-12)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했습니다(32:4).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번식력이 강한 황소를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인터넷)
시내산 밑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마치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후 1:8-9).

ㅈㅈ

주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 ㅈㅈ
(마 5:19)